

지역 매 아리

김제시, 농협목우촌 수제햄세트 후원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주)농협목우촌 명찬동 지점장은 26일 김제시(시장 박준배)를 방문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제햄 306세트를 기탁했다.

사람의 열매 '농협목우촌 수제햄'은 주민복지와 통합사례담당자와 읍면동 및 총협복지팀 직원들이 관내 무료급식소와 지역아동센터, 저소득가정에 전달하였다.

전달식에 참석한 명찬동 지점장은 "(주)농협목우촌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수제햄을 드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을 보내시길 바라며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눔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주)농협목우촌의 따뜻한 기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복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주)농협목우촌 전주지점에서 지난해 10월에도 수제햄 1,196개를 후원하여 622개소의 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심뇌혈관질환 예방

음·면발 순회강연 실시

완주군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순회강연으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완주군 보건소는 26일 소양면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연을 실시했다.

순회강연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초빙됐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의 이해를 비롯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법,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수칙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소양면에서 시작한 이번 강연은 읍면별 순회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강연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과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의 예방관리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1:1 맞춤형 건강 상담,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전개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심해경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튼튼한 혈관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100년 전 외침 다시 한번

완주 새마을회-완주문화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독립선언문 낭독·만세운동 재현... 삼례시장 광장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완주군 삼례시장 광장에서 3.1 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태극기가 가득 차 있다.

완주군은 완주군 새마을회(회장 임필환)와 완주문화원(원장 김상곤)이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는 3.1절 삼례시장에서 '3.1 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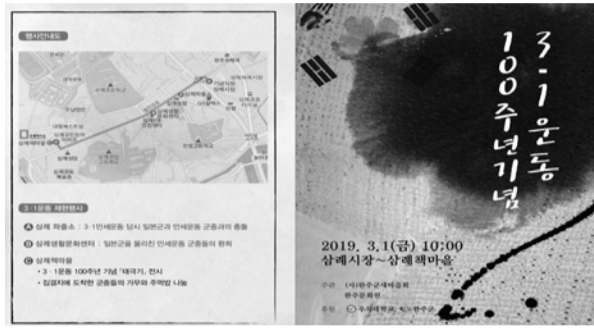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 따르면 '1919년 3월 24일 삼례면(參禮面) 삼례리 삼례장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만세 운동을 전개했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당시 군중들은 만세운동과 함께 삼례역을 탈환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삼례역이 개통되면서 일제는 만경평야에서 생산되는 양곡을 철도를 이용해 삼례를 거쳐 군산으로 옮기고 일본으로 반출해왔다.

완주군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완주군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삼례시장 만세운동과 삼례역 탈환시도 등 완주지역 3·1 운동의 역사를 알리는데 계획이다.

100년 전 뜨거웠던 그날 독립만세운동 현장으로 돌아가 우리 지역 선조의 높은 뜻을 기리고 완주군의



완주군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삼례시장~삼례책마을' 만세운동거리에 태극 물결을 조성한다. 사진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팸플릿.

발전으로 이어가고자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는다.

행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최동원 완주군의회의장, 장영달 우석대총장을 비롯해 지역 내 기관, 보훈, 사회단체, 독립유공자, 학생,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인원이 대거 참여할 계획으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기념식 및 기념공연을, 2부에서는 군중들이 제각각 손에 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3.1만세운동을 재현한다.

또한, 만세운동 당시 일본경찰과 군중들과의 충돌 퍼포먼스, 일본군의 탄압을 이겨낸 만세운동 군중들의 환희 퍼포먼스를 거쳐 집결지인 삼례책마을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이번 기념식이 열리는 삼례시장 사거리 및 만세운동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 및 현수막을 게양하고 '삼례시장~삼례책마을' 만세운동거리에 태극 물결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읍·면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에 나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위업을 기린 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준배 시장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제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KTJ 김제역 정차 위해 혼신"

박준배 시장, "호남선 운행 익산역서 끊겨 지역불균형 초래"

박준배 김제시장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제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KTJ 김제역 정차를 위해 범시민 역량을 결집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박준배 시장은 먼저 "2015년 4월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김제역에는 더 이상 KTJ가 정차하지 않고 지난 1월에는 KTJ 혁신역 신설도 국토부의 경제성 논리로 무산되었다"며 김제시가 철도교통 오지로 전락하게 된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시장은 "현재 경부선은 KTJ가 부산까지 일반선으로 운행하나 호남선 운행은 익산역에서 끊겨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며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지표로 표방한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추진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박 시장은 또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전개하는 동시에 출향인,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토부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강력히 건의하는 등 KTJ가 김제역에 정차하는 그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민과의 대화가 19개 읍면동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속에 잘 마무리 된 것과 관련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건의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직소민원의 날, 경로당 현장방문 등 시민과의 소통·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농기센터, 화상병 및 돌발해충약제 무료공급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26일 올해 돌발병해충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 관내 사과·배·감·복숭아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및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약제를 무료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물병역방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 화상병은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며 특히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른 세균병이다.

또한 일단 감염되면 수확량 감소는 물론 식물 전체가 말라죽게 되며 감염된 식물 유래의 세균검역이 비, 바람, 곤충류에 의해 전파되거나 전정가위 등에 묻어 전파되므로 과수 수확 이후부터 신초 및 꽃발아 전까지 약제처리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

과·배 농가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3월상순까지 농가에 무료로 화상병 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며 돌발해충 약제는 4월하순까지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민관합동 공동방제'의 날 5월중순경 계획수립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공익복지과 등이 인력과 장비, 예산 지원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경지는 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고, 산림지 및 인근농지는 광역방제기, 무인헬기 등을 이용하여 돌발해충을 일제히 박멸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경지·산림·도로변 등 기관 간 공동방제를 통해 그동안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준 돌발해충의 발생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업방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분위기를 확산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목표액의 2,867억원을 상반기내에 집행하기로 하였다.

김제시는 이를 위해 26일 부시장을 주재로 전체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상반기

월별 집행계획을 정하고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각종 시설비 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상반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김제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에게 하루빨리 보다 나은 노인복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또한 6월까지 상반기 목표액인 2,867억원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부서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하여 부서별 재정보고회를 월별 개최, 부서별 재정집행 애로사항 지원, 신속집행 현황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비농매립장 오염수 관리

완주군이 비농면 백도리에 위치한 매립장의 악취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비농매립장 사업자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예치된 사후관리이행보증

금을 수령해 직접 관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보증금 신청에 대해 사업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완주군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에 따라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에 수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7억7000여만원으로 오염수 관리,

환경오염조사비, 매립장재방관리비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완주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오염수원인 및 관리방안 용역이 끝나게 대로 오염수 계곡수처리공사와 함께 오염수 차질 및 집수시설 설치 및 악취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